

시민당 “5·18 발포명령자 반드시 규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도부 광주 방문... 민주묘지 참배·오월어머니회와 만남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대위... “코로나서 국민 지키는 선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은 1일, 4·15 총선 ‘원팀’의 의미를 강조하는 첫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시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코로나19에서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합동 선대위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장소와 참석자, 복장 등을 통해 민주당과 시민당은 ‘원팀’을 부각하면서

도, 참석자들은 ‘선거 출마자 등은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8조 등을 의식해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이를 반영하듯,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시민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원팀’을 강조했지만, 지역구 후보로 나선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는 이날 “두 당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앞에서 끌어주면 실천력을 가진 시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밀고 가겠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21대 총선 첫 지역 선대위를 경기도에서 연다”고만 언급, 민주당과 시민당의 ‘공동회’를 강조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 이후 시민당 지도부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호남 지역 민주당 후보들과 공동으로 참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오월어머니회와 만나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등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도 약속했다. 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서 반드시 남북평화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려야 한다는 마음은 민주당이나 시민당이나 한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새 4·15 총선 공약을 잇달아 두 번 수정하는 등 혼선을 빚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북한 이웃국가 인정 등이 담긴 초안이 지난달 31일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철회하고 1일 내용을 대폭 수정한 두 번째 버전을 공개했다. 하지만 두 번째 버전도 민주당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같은 날 다시 공약 내용을 바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당 참여 정당들이 ‘원래 공개했던 내용이 합의의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장병완·천정배 “민주 정권 재창출 위해 헌신”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마지막 기회 달라” 지지 호소



민생당 천정배(광주 서구을·왼쪽), 장병완(광주 동남갑) 후보가 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민생당 광주 동남갑 장병완 후보와 서구를 천정배 후보가 호남 예산 확보와 민주진영 정권재창출을 위해 사실상 ‘마지막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특히 ▲민중개혁세력 정권 재창출 ▲푸른당 국정경험·인맥으로 광주 발전 ▲뉴DJ 발굴·육성 등을 이루기 위해 ‘원팀’을 만들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친다고 선언했다. 이들 후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 정부의 법무부(천정배)·기획예산처(장병완) 장관 출신인 저희가 협력해 호남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광주 정치가 민주당 초선과 1.5선만으로 채워진다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호남 정치가 추락할 것이다”며 “현재와 같은 모습의 민주당만으로는 민주정권 4기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정치의 아이콘과 예산의

달인인 저희가 광주와 호남 정치의 후퇴를 막고 공동의 비전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광주 정치와 경제 발전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기회를 다시 주시면 호남에 기반한 민주개혁 세력 연대를 통해 호남 대선 주자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주개혁 세력이 대연합하는 민주개혁 정권 창출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개발, 에너지 밸리 확장, 기업 유치 등의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6선의 천 의원과 3선의 장 의원은 그동안 쌓인 경험과 예산 확보 방법 등을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과 공유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선언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광주지역 총선이 별다른 이슈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 의원들의 ‘지역 발전 연대’ 제안이 파장을 일으킬지 여부도 관심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당층’ 숨은표 위력 발휘할까

갤럽 여론조사 27% 차지
민주당 “효과 미미”
통합당 “사이보우 최대 8%”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야당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정치 성향을 밝히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숨어있

던 이들의 표심이 선거 당일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전반적인 판세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이상으로 미래통합당에 앞서는 양상이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갤럽의 지난달 24~26일 조사에서 민주당 37%, 통합당 22%, 무당층 27%로 나타났으며, 리얼미터의 지난달 23~27일 조사에서도 민주당 44.6%, 통합당 30.0%, 무당층 8.4%로 집계됐다. 그러나 무당층이 상당하고, 정치권에서 통상 전체 유권자의 40%를 보수 지지층으

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권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이 과하게 반영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도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표심을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사·도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지역구 판세를 분석하면서 ‘사이(shy) 보우’ 등 숨은 표를 고려했다. 다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당층에 야당 표가 숨어있는 것은 일반적 패턴이기는 하나 크기 자체가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처럼 야당을 지

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노년층, 영남과 호남처럼 특정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당 지지자 등이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흥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이 앞서서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사이보우’ 결집을 강조했고, 민주당도 사이보우수가 10% 내외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보수 지지층은 한국당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14곳을 가져갔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다시 길에 선 안철수

대선 후 3년만에 국토 중주... “유권자 마음 읽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오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국토 대중주의 스타트를 끊었다.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안 대표는 출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가 못나고 정부가 무능해도 현명한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용기와 희망을 갖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토를 중주 하면서 만나 뵈는 한분 한분의 마음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방법을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정치하지 못한 정치인, 책임지지 않은 정치인

을 가려내주셔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진실이 때로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진실의 정치를 통해 사회의 희망을 찾고 싶다”며 “총선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 내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긍정 에너지를 살리는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수에서 출발해 여수공항 방면으로 20km를 달릴 예정이다. 2일부터는 수도권을 향해 오전과 오후에 2~3시간씩 달리며 하루에 30km씩 이동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사기꾼(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자: 신협 내부사기꾼(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